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2026.05.10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일반직(행정직원)

1장: 산업(섹터) 분석 — 한국 고등교육(대학교육) 산업

1-1. 산업 정의와 시장 구조

한국 고등교육 산업은 4년제 일반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대학원대학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교육개발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24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정원은 196개 대학 약 34만 4,000명, 전문대학은 132개교 16만 6,000명, 전체 약 328개 대학·약 51만 명 규모입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2022~2023 고등교육 통계자료집」 기준 4년제 대학 재학생은 약 139만 8,000명이며, 사립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4년제 사립대 신입생 총원율 96.6%, 사립대학 입학경쟁률 9.1:1로 국·공립(7.6:1)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고등교육이 본질적으로 사립 중심 시장이며,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구조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산업 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국면에 서도 총원율 99%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비수도권 사립대는 총원율이 90% 아래로 떨어진 학교가 다수이며, 일부 지방 사립대는 정원의 70%대 총원에 머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서울캠퍼스(동대문구 이문동)와 글로벌캠퍼스(용인 모현읍)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도권 명문대의 안정성과 동시에 글로벌캠퍼스의 비수도권 운영 부담을 함께 짚어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중성은 행정 인력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본부 부서와 단과대학 간 의사결정 라인, 캠퍼스 간 인사 이동,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 일반 단일 캠퍼스 사립대와는 다른 복잡도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한국 고등교육 시장은 정부 규제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정원 관리, 국가장학금 연계,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 다층적 규제 장치가 작동하며, 그 결과 사립대 운영진은 시장 자율성보다 정부 정책 방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행정직 일반직이 단순한 학사 운영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 해석자이자 사업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2. 학령인구 절벽 — 산업의 가장 큰 위협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 인구는 1990년 92만 명에서 2021년 47만 6,000명, 2024년 약 43만 명, 2040년 약 28만 3,000명으로 30년 만에 약 70% 감소합니다. 대학 입학가능인원 또한 2020년 46만 4,826명에서 2040년 28만 3,017명으로 18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2021학년도 대입 정원(47만 2,496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4년 미충원 결원이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40년 신입생 총원율을 약 58.8%로, 일부 전문가는 2043년 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사례(재무성, 2040년까지 사립대 약 250개교·약 14만 명 정원 감축안 ; 2024년 사립대 624개교의 40% 수준)와 매우 유사한 구조적 위기 신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일 변수가 아니라 다층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첫째, 신입생 모집의 기본 풀 자체가 줄어들면서 입시 경쟁률 하락과 총원 미달이 일상화됩니다. 둘째, 학생 수 감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소는 곧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사립대 재정의 핵심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학과별 인기 양극화가 심화되어 어문계열·기초학문 전공의 폐지·통폐합이 가속화되며, 이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한국외대에 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대학 간 통폐합·구조조정 압력이 강화되면서 행정 인력의 재배치, 직제 개편, 명예퇴직 등 인사 측면의 변동도 빈번해집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외대는 2024학년도 통번역대학(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 통번역과)과 국제지역대학(프랑스·브라질·인도·러시아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고, 2024학년도에는 독일·스페인·이탈리아·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까지 4개가 추가 폐지되어 총 12개 외국어 유사학과의 통폐합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전체의 구조적 압력이 한국외대의 학사구조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 과정의 행정 실무 자체가 학적 처리, 잔여 학생 보호, 졸업 요건 조정, 교원 재배치 등 매우 복잡한 일반직 업무를 동반합니다.

1-3. 등록금 14년 동결과 2024~2026 인상 본격화

2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과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상한)을 기점으로 사실상 동결되어 온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간접 규제 메커니즘을 통해 14~17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에는 사총협 조사 기준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31개교(68.9%)가 인상에 동참, 사립대 151개교 중 120개교(79.5%)가 인상하였고, 2025학년도 법정 상한 5.49%를 모두 적용한 대학도 9개교(사립 6, 국공립 3)였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및 등록금 연계 해제를 발표하였으며, 2026학년도 법정 상한은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약 3.19%)로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외대는 2025학년도 5%(17년 만의 인상), 2026학년도 2.3%(기존 2.8%에서 학생협의 끝에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0.5%p 추가 인하 확정)로 2년 연속 인상하였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상을 상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등록금 정책의 변화는 사립대 재정 운영 전반에 본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14년 동결 기간 동안 사립대들은 실질적 재정 축소를 겪었고, 그 공백을 정부 재정지원사업·발전기금·수익사업·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메워왔습니다. 2025년부터의 인상 흐름은 단기적 재정 숨통이지만, 동시에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협상 비용,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2026학년도 외대 협상에서 학생 95.49%가 반대 설문 응답한 사례에서 보듯, 등록금 인상은 단순한 회계 결정이 아니라 학내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안이며, 이 과정의 협상 실무, 자료 작성, 회의 운영, 사후 공지 등이 모두 일반직 행정 업무로 귀속됩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이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지급으로 이어지던 종래의 페널티 구조가 2027년 폐지되면, 사립대의 등록금 결정 자율성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상 자체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학생회의 반발은 구조적 상수로 남아 있어, 행정 인력의 협상·소통 역량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1-4. 정부 정책 — 글로벌대학30·RISE·Study Korea 300K

교육부의 3대 핵심 정책 패키지가 산업 지형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대학30은 2023년 10건·2024년 10건·2025년 7건(9개 대학) 등 3년간 총 27건(39개 대학)이 본지정 완료되었으며, 학교당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5년간 약 1,000억 원과 규제 특례가 지원되나, 수도권 대학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가 수도권에 소재한 결과 본 사업은 직접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외대는 글로벌대학 사업의 직접 수혜에서 배제된 만큼,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BK21, LINC 3.0, HK+ 등)에서의 수주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2025년부터 17개 시·도 전역에서 시행되며 5년간 연 2조 4,000억 원 규모의 국고·지방비가 광역시도 주도로 지역대학에 투입됩니다. RISE는 종래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광역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로, 외대 글로벌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및 송도캠퍼스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RISE 정책 방향과의 연계가 향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인하대·인천대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 등을 RISE 핵심 과제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외대 송도캠퍼스가 이 지역 생태계 안에서 어떤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가는 송도캠퍼스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입니다.

셋째, Study Korea 300K Project(2023년 8월 발표)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미 2025년 외국인 유학생 25만 3,434명(전년 대비 21.3% 증가) 도달, 학위과정 70.7%·이공계 23.9% 비중 확대, 비수도권 비중 45.8%로 수도권 쏠림 완화 추세입니다. 이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한국외대에 매우 의미 있는 기회 요인입니다. 외대는 87개국 540여 자매대학 네트워크, 한국어문화교육원, 통번역대학원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프라가 타 대학 대비 압도적이며, AI 융합대학·송도캠퍼스 외국인자유전공학부 등 신설 학부도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결국 "지역과의 연계, 글로벌화, 첨단·융합 분야 강화, 재정 자율성 회복"으로 요약되며, 외대는 이 4가지 축에서 모두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정부 사업으로 수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사업 기획서 작성, 평가 대응, 컨소시엄 구성, 성과 보고 등 일반직 행정 인력의 실행력이 결국 수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1-5. 디지털 전환·산학협력·구조조정의 가속

ChatGPT 등 거대언어모델의 보편화로 어문계열 통번역 수요는 재편기에 진입하였고, K-MOOC 한국어·한국학 강좌가 2021년 105개에서 2025년 6월 478개로 4.5배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립대 적립금은 2024년 274개 사립대 중 184곳(67.2%)이 증가, 보유 적립금 11조 5,644억 원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대학기관평가인증(2025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체)이 산업의 구조조정 도구로 작동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어문계열에 양면적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으로는 AI 번역기의 발달이 통번역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간 통번역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 통번역(외교·국제기구·법률·의료·문화 콘텐츠)에서의 인간 전문성 수요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통번역 교육은 AI 활용 능력과 인문학적 깊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이 2025년 APEC 시진핑 주석 국민방문 통역, 2025년 G20 정상회의 동시통역 등 국가급 의전을 수행한 것은 이러한 고급 통번역 시장에서 외대의 위상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외대의 전통적 약점이 점진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AI융합대학 신설 과정에서 LG CNS·네이버클라우드와의 MOU, 송도캠퍼스 입지를 활용한 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 가능성, 통번역대학원의 콘텐츠 산업 협력 등 외대의 산학협력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모델은 어문·인문계열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1-6. 가치사슬과 주요 플레이어

대학의 가치사슬은 입학 모집·홍보, 학사·교육 운영, 학생 지원·장학, 졸업·진로, 동문·후원·발전기금, 부속·부설기관(어학원·평생교육원·산학협력단·부속병원 등) 수익 다각화로 구성됩니다. 한국 사립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서성한(서강·성균관·한양), 중경외시(중앙·경희·외대·서울시립), 이화·건국·동국, 그리고 KAIST·POSTECH·UNIST·D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며, 한국 외대는 외국어·국제화 도메인의 독보적 포지션을 점유합니다.

가치사슬의 각 단계마다 행정 인력의 역할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입학 단계에서는 입학처가 입시 기획·모집요강·홍보를 담당하고, 학사 운영 단계에서는 교무처·학생처가 핵심 실무를 맡으며, 진로·졸업 단계에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진로취업지원센터가 활동합니다. 동문·발전기금은 대외협력처와 발전기금재단이 운영하며, 부속·부설기관은 별도 행정 라인을 가지면서도 본부 정책과 연계됩니다. 일반직은 이 가치사슬의 어느 단계에도 배치될 수 있으며, 순환보직을 통해 다영역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외대 행정 인력의 표준적 경력 모델입니다.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 외대가 보유한 핵심 자산은 외대어학원(영어학원 프랜차이즈), FLEX센터,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어문화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외국어·교육 도메인의 수익사업이며, 이들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핵심 수단입니다. 등록금 의존율 63.2%라는 높은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수익사업의 매출 확대와 신규 수익 모델 발굴이 필수적이며, 행정 인력은 이 사업들의 운영 효율성과 마케팅 역량을 떠받치는 실행 자원입니다.

1-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산업의 본질적 위기 신호(인구절벽·재정난·정부 규제 강화)와 기회 신호(유학생 30만 시대·AI 융합·등록금 정상화)가 공존하는 변곡점이라는 점이, 사립대 행정직에게 과거의 단일 관리자 모델이 아닌 사업 기획자·정책 대응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한국외대의 경우 글로벌대학30 직접수혜 배제, 등록금 의존율 60%대 후반, 어문계열 재편 압력 등 구조적 도전이 누적되어 있어, 행정 인력의 정책 해석력과 사업 기획 역량은 다른 사립대 대비 더 큰 가중치를 갖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입사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의 직무 적합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 외대의 위치

2-1. 동종 비교 대상 — 외국어 특성화 vs 종합 사립

한국외대는 외국어 특성화 도메인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같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소속)와 비교되지만, 실제 입시·취업·연구 시장에서의 경쟁군은 서울 소재 중상위권 사립대학, 즉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SKY+서성한), 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건국대·동국대·홍익대(중경외시건동홍)입니다. 글로벌·국제화 강점에서는 이화여대(국제처·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희대(글로벌캠퍼스 국제학부), 숙명여대(글로벌서비스학부) 등이 경쟁군이며, 통번역·국제지역학 도메인에서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이 비교 대상입니다.

다.

이 다층적 경쟁 구도는 외대의 행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어 특성화 도메인에서는 외대가 명실상부한 1위이지만, 종합 사립대 도메인에서는 중경외시 그룹 안에서 중앙대·경희대와 경쟁해야 하고, 글로벌 도메인에서는 이화여대와 경쟁하며, 통번역 도메인에서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과 양강 구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외대 행정 인력은 어떤 영역의 경쟁력을 우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 없는 우선순위 결정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기획·홍보·국제·산학협력 부서의 업무 방향성에 본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대와 비교 대상 대학들 사이의 학생 수 규모, 교직원 수, 예산 규모 등에서도 의미 있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은 외대보다 학생 수와 예산 규모가 크고, 의대·공대 등 고수익 단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러한 규모 차이는 행정 운영의 표준 절차, 전산 시스템 투자 여력, 정부 사업 수주 인프라 등에서의 격차로 이어지며, 외대 행정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하는 효율성 압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2-2. 한국외대의 포지셔닝 — "국내 유일의 인문학 중심 융합대학"

한국외대는 전임 박정운 총장(영어과 출신)이 인터뷰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선두권 이공학 중심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인문학 중심 융합대학"을 비전으로 삼아왔으며, 2026년 3월 1일 임기를 시작한 강기훈 제13대 총장(통계학과, 개교 이래 첫 이공계 출신)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여는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 비전 아래 AI·데이터 융합 교육 인프라 구축(AI 캠퍼스), 산학협력 생태계, 정부 재정지원 사업·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데이터 기반 운영의 4대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정운 전 총장 시기와 강기훈 신임 총장 시기는 외대의 포지셔닝 전략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박정운 시기는 "인문학 중심 융합"이라는 외대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융합을 추구하는 모델이었다면, 강기훈 시기는 통계·AI·데이터의 외연을 적극 확장하면서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라는 보다 폭넓은 정체성을 모색하는 모델입니다. 이 변화는 외대 개교 이래 첫 이공계 출신 총장의 등장이라는 상징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향후 외대의 학사구조·교원 채용·예산 배분·국제협력 방향성에 누적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지셔닝의 또 다른 차원은 "외국어 명문 대학"이라는 전통 브랜드와 "융복합 미래 대학"이라는 신규 브랜드 사이의 균형입니다. 외국어 명문 브랜드는 외교·통번역·해외 영업·국제기구 등의 전통 진로 시장에서 강력한 자산이지만, 일반 입시 시장과 IT·바이오·금융 등 신산업 채용 시장에서는 융합 브랜드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외대 행정 인력은 입학·홍보·취업·동문 부서에서 이 두 브랜드를 어떻게 결합·차별화하여 메시징할 것인가에 관한 실무 결정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2-3. 한국외대의 강점 — 데이터로 본 차별화

첫째, 45개 외국어 교육으로 프랑스 INALCO(93개), 러시아 МГИМО(56개)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이며, 국내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이 자산은 외교부, 외교관후보자 시험, 국가정보원, KOTRA, 코이카(KOICA), 국제기구, 종합상사,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 등에서 외대 동문 진출의 토대로 작동하며, 외대의 동문 네트워크가 다른 사립대와 차별화되는 핵심 요인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둘째, 통번역대학원은 1979년 설립된 동양 최초의 세계통번역대학원협회(CIUTI) 회원교로서 8개 언어 동시통역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통역 고시"로 불릴 만큼 국내 최고 권위(한국외대·이화외대 양강 체제)를 유지하여 2025년 APEC 시진핑 주석 국민방문 통역, 2025년 G20 정상회의 동시통역 등 국가급 의전을 수행했습니다. 통번역대학원의 존재는 외대 학부의 어문계열 교육 품질에도 양의 외부효과를 발휘하며, 학부 졸업 후 통번역대학원 진학이라는 진로 경로를 통해 외대 어문계열 학부의 매력도를 유지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셋째, 외교·고시 진출에서 2025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8명 합격(전체 43명 중)·수석 배출, 5급 공채 국제통상직 수석까지 배출하며 2년 연속 외교관 수석을 배출하였습니다. 외교부 차관급 동문으로는 조현동 전 주미대사(스페인어 78), 윤덕민 전 주일대사(정치외교 79),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LD학부 교수), 박상미 주유네스코 대사(국제학부 교수) 등이 있으며, 이 동문 풀은 외대 학생들의 진로 멘토링, 인턴십 추천, 국제기구 진출 정보 등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넷째, 87개국 540여 개 자매대학 네트워크와 미주·유럽·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남아공 등 40개 해외동문회를 보유하며, 박정운 총장 임기 중 해외 동문을 통해서만 1,000만 달러(약 140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습니다. 해외 동문회 네트워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환학생 수요 발굴, 해외 인턴십 알선, 국제 학술대회 운영 등에서 행정적 지원 채널로 활용되며, 외대 국제교류처 업무의 글로벌 도달 범위를 확장시키는 인프라입니다.

다섯째, 자체 개발 어학시험 FLEX는 2007년 교육부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증되어 외교관후보자 시험 외국어과목 대체, 5·7급 공무원 어학 인정 등으로 활용되는 7개 언어 시험입니다. FLEX는 외대의 수익 다각화 사업이자 외대 어문 교육의 산업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도구이며, FLEX센터의 운영은 일반직 행정 인력이 학교 외부의 응시자·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적 드문 영역입니다.

2-4. 한국외대의 약점·도전과제

첫째, 학사구조의 어문 편중은 1세대 외무고시·국가전략언어 중심 구조가 디지털·AI 시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2023학년도부터 통번역대학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 통번역과 및 국제지역대학 프랑스·브라질·인도·러시아학과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2024학년도에는 독일·스페인·이탈리아·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까지 4개가 추가 폐지되어 총 12개 외국어 유사학과 통폐합이 단행되었습니다. 학과 통폐합의 행정 처리는 잔여 학생의 학적 보호, 졸업 요건 조정, 교원의 재배치, 통합 후 신설 학부의 교육과정 설계 등 매우 복잡한 일반직 업무를 수반합니다.

둘째, 이원화 캠퍼스의 비효율은 서울캠퍼스(동대문구 이문동, 인문·사회 중심)와 글로벌캠퍼스(용인 모현읍, 자연·공학·통번역) 간 학생 선호도 편차와 인프라 격차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글로벌캠퍼스의 입시 경쟁률·신입생 충원율·중도 이탈률은 서울캠퍼스 대비 열세이며, 두 캠퍼스 간 본부 행정 부서의 이중 운영은 일반직 인력의 출퇴근·회의·결재 라인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송도캠퍼스 개교 이후에는 삼원화 운영의 부담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디지털 협업 인프라(WIS·전자결재·핸디오피스 등)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향후 행정 효율성의 핵심 변수입니다.

셋째, 재정 구조의 취약성은 2023년 대학재정알리미 기준 등록금 의존율 63.2%로 연세대 35.4%, 고려대 48.5%, 성균관대 46.7%, 이화여대 47.6%, 한양대 54.8%를 크게 상회하며, 2021년 법인전입금은 전체 수입의 0.9%에 불과했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조사에서 부채 비율 9.7%로 경희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대(10.7%)에 이어 사립대 2위로 보고되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에 더 취약하다는 의미이며, 외대가 정부 재정지원사업·발전기금·수익사업·산학협력 수입의 비중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가 향후 10년의 재정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넷째, 취업률에서 2024년 졸업자 순수취업률 65.29%, 유지취업률 82.94%로 서울 소재 5개 사립대 평균 대비 각각 8.13%p, 4.41%p 낮은 수준입니다. 어문계열 졸업생의 진로 시장이 종래의 외교·무역·교육·관광·언론에서 IT·바이오·콘텐츠·금융 등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적응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진로 교육·인턴십 매칭·기업 협력 채널 구축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와 진로취업지원센터의 핵심 과제입니다.

2-5. 최근 1~6개월(2025.11~2026.5) 주요 이슈

2025년 11월 28일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가 제13대 총장 후보 결선 투표에서 가중 득표율 71.3%로 1위, 이사회 승인 후 2026년 3월 6일 취임식 개최(임기 2030년 2월까지)되었습니다. 강 총장의 통계·이공계 배경은 외대 개교 이래 첫 사례로, AI·데이터 기반 학사 운영, 산학협력 확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주 강화 등에서 새로운 추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송도캠퍼스 2단계 복합건물(지상 5층·6,241m²) 준공식이 개최되었으며, 2027년 개교 목표로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외국인자유전공학부 신설 및 매년 100명 선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도캠퍼스의 개교는 외대의 캠퍼스 운영을 이원화에서 삼원화로 확장시키는 변곡점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연수구청과의 협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와의 산학협력,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 학사 운영 등 행정 측면의 신설·재구축 과제가 다수 발생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동원육영회(이사장 김종철, 4년 연임 중·임기 2028년 3월까지) 이사회에서 강기훈 차기 총장 선임 의결, 2026학년도 등록금 2.3% 인상 확정(2026.1.27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95.49% 반대 설문에도 협상 끝에 합의, LG CNS·네이버클라우드와 AI캠퍼스 구축 MOU 체결 등이 최근 6개월 간의 주요 이슈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외대의 거버넌스, 재정, 학사, 산학협력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변곡점을 표시하며, 일반직 행정 인력은 이 변곡점들의 실행 단계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합니다.

2-6. 면접·이해도 활용 포인트

한국외대 포지셔닝의 핵심은 "외국어 + 지역학 + AI/데이터 융합"의 3축 전략이며, 단순 어문대학에서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라는 점을 데이터(45개 외국어, 87개국, 통번역대학원, 외교관 수석, 송도캠퍼스, AI융합대학)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경쟁사 대비 외대의 위치를 정확히 그리는 출발점입니다. 외대를 연세·고려·성균관과 비교할 때는 외국어·국제화의 차별화 요소를, 이화·경희와 비교할 때는 통번역대학원과 외교관 진출의 차별화 요소를, 부산외대·사이버외대와 비교할 때는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사구조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층적 비교 프레임이 외대 일반직 직무 이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3-1.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지배구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1952년 12월 동원(東園) 김흥배 박사(1914~1987)가 단독 설립한 사립학교 법인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1954)·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외국어고등학교(現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운영합니다. 1998년 학내 비리(입시·예산 유용)로 관선이사 체제가 도입되었고, 2004년 교육부 추천 3인·학내(교수·교직원노조·학생) 추천 3인·당연직 2인(총동문회장, 설립자 측) 등으로 구성된 공영재단 체제가 확립되어 한국 사학사상 매우 드문 거버넌스를 가집니다.

2020년 3월 30일 김종철(설립자 김흥배 박사의 조카, 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 교수) 이사장이 제8대 이사장으로 부임, 2024년 1월 16일 이사회에서 연임이 확정되어 임기는 2028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학교법인은 자곡동 부지 매각 보상금 운용, 외대어학연구소(영어학원 프랜차이즈), FLEX센터, 외국어연수평가원, 통번역센터, 평생교육원, 한국어문화교육원, TESOL, 사회교육원, i외대, 영재교육원 등 부속·수익 사업을 운영합니다(동원그룹 산하 동원육영재단과는 무관).

공영재단 거버넌스는 외대 운영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일반 사립대의 경우 설립자 일가의 지배가 강한 가족 사학 구조가 다수이지만, 외대는 1998년 사건 이후 학내 구성원과 외부 추천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의사결정의 민주성·투명성과 동시에 의사결정의 속도·과감성에서의 제약을 의미합니다. 행정 인력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라인이 다층적이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보고·협의 과정의 복잡도가 높으며, 동시에 학내 정치의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에서 정확한 절차와 기록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3-2. 사업(학사) 구조 — 이원화에서 삼원화 캠퍼스로

서울캠퍼스(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인문·사회·경상·법·사범 중심)와 글로벌캠퍼스(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자연·공학·통번역·국제지역 중심)의 이원화 체제는 2014년 본·분교 통합 인가로 단일 학교 운영으로 전환되었으며, 2027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연수구 송도동) 송도캠퍼스 개교(부지 4만 3,595m²·교사 6,241m²)로 삼원화 캠퍼스 체제로 진입합니다.

캠퍼스 구조의 변화는 외대 행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변화입니다. 본·분교 통합 이후 단일 학교로 운영되지만 물리적으로는 두 캠퍼스가 약 50km 떨어져 있어 본부 부서의 이중 운영, 교원·직원의 출퇴근 부담, 학생의 캠퍼스 간 수강 신청, 자료의 캠퍼스 간 이동 등 운영상 비효율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송도캠퍼스 개교 이후에는 인천 연수구라는 제3의 거점이 추가되며, 송도캠퍼스가 어떤 본부 기능을 분담할 것인가, 송도 학사 운영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본부와 송도 간 의사소통 채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 신설 행정 과제가 다수 발생합니다.

송도캠퍼스의 입지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외국인 유학생 접근성이 우수하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녹색기후기금(GCF)·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국제기구와의 인접성이 높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 유치 정책과 연계 가능성도 큼니다.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와 외국인자유전공학부의 매년 100명 선발은 작은 규모이지만, 외대의 산학협력·국제화·융복합 의제를 결합한 실험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3-3. 단과대학 구성

총 18개 단과대학·6개 독립학부·64개 학과·13개 학부 체제이며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있습니다.

서울캠퍼스의 단과대학으로는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중국학대학, 일본학대학, LD학부(Language & Diplomacy), LT학부(Language & Trade),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AI융합대학(서울)이 있으며 AI융합대학은 Language & AI 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 융합학부로 구성됩니다. 또한 융합인재대학(인제니움칼리지), 국제학부, 자유전공학부(서울)가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단과대학으로는 인문대학, 경상대학(GBT 등), 국가전략언어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반도체전자공학부 신설),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AI융합대학(글로벌)이 있고 글로벌 AI융합대학은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로 구성됩니다. 추가로 기후변화융합학부, 자유전공학부(글로벌)가 있으며, 두 캠퍼스 공통으로 미네르바교양대학이 운영됩니다. 대학원으로는 일반대학원, 통번역대학원(1979 설립, 8개 언어 230석 동시통역장), 국제지역대학원(UN평화대학 공동학위), 경영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TESOL대학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사 조직의 다양성은 행정 운영의 복잡도를 결정합니다. 영어대학·서양어대학·동양어대학 등 어문계열 6개 단과대학과 LD·LT·국제학부 등 융합 학부, AI융합대학 2개(서울·글로벌),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기후변화융합학부 등 신생 학부가 공존하면서 각 학부별 학사 규정의 차이, 졸업 요건의 차이, 외국어 인증 기준의 차이 등을 행정 인력이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4. 중장기 비전 — 「외대비전 2028」

2020년 수립된 「외대비전 2028」은 비전으로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을 제시하며, 3개 부문 13대 핵심과제로 구성됩니다. [교육·학생] 미래시대 대학교육 선도 융복합 인재 양성 심화, [교수·연구] 글로벌 연구역량 및 융복합 연구기반 강화, [인프라·재정] 기업가형 대학 운영 체계 구축이 3대 부문이며, 외국어를 과정 이수제에서 수준별 인증제(FLEX 활용)로 전환, 국제포편언어(영어)·권역별 주요언어(중·일·러·서·아·불·독)·특수외국어(중동·아프리카·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로 차별화한 외국어 교육 체계, K-MOOC 강좌 개발, 서울-글로벌-송도 3캠퍼스 원격교육, 학생 6대 핵심역량(HUFSAbility) 통합관리시스템이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외대비전 2028」은 2020년 수립 시점에 송도캠퍼스 개교(2027년)와 연계된 종착점으로서 2028년을 설정한 의미가 있으며, 강기훈 신임 총장 체제에서 비전의 후속 버전(2030 또는 2035 등)이 새롭게 수립될 가능성이 큼니다. 비전 수립 자체가 외대 기획조정처와 연구원의 핵심 중장기 과제이며, 이 과정에는 학내 의견 수렴, 외부 자문, 정량 데이터 분석, 발표 자료 제작 등의 행정 실무가 동반됩니다.

비전 운영의 또 다른 차원은 비전과 학사의 연결입니다. 외국어 수준별 인증제, K-MOOC 활용, 3캠퍼스 원격교육 등은 모두 학사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며, 학사정보시스템(WIS)의 개편, 졸업 요건의 재정의, 강의 운영 매뉴얼의 갱신 등 행정 측면의 후속 과제를 동반합니다. 6대 핵심역량(HUFSAbility) 통합관리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역량 데이터를 누적·분석하는 도구로서, 학생인재개발처와 진로취업지원센터의 데이터 행정 역량을 시험하는 인프라입니다.

3-5. 차별화 포인트 — 7대 자산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1) 45개 외국어 국내 1위·세계 3위, (2) 통번역대학원 국내 최고 권위, (3) FLEX 시험 국가공인 7개 언어, (4) 외교·고시 진출 2년 연속 외교관 수석·외교부 차관급 동문 다수(조현동 전 주미대사 스페인어 78, 윤덕민 전 주일대사 정치외교 79,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LD학부 교수, 박상미 주유네스코 대사 국제학부 교수 등), (5) 87개국 540여 개 자매대학 네트워크, (6) AI융합대학(2024 신설), Language & AI 융합학부는 2년 만에 175대 1 경쟁률로 학내 최고 인기 학과, (7) 송도캠퍼스(2027) 글로벌바이오 클러스터(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인접) 산학협력의 7대 자산이 외대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이 7대 자산은 외대의 마케팅 자료, 입학설명회, 발전기금 모금, 정부 사업 신청서, 동문 대상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며, 행정 인력이 작성하는 보고서·기안문·홍보 자료의 기본 콘텐츠 라이브러리로 기능합니다. 자산 자체의 가치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후속 과제로는 45개 외국어 교육의 질 관리(원어민 교원 확보, 어학 콘텐츠 제작), 통번역대학원 신입생 유치(국내 학부 진학자 비중 증가 추세), FLEX 시험의 응시자 풀 확대, 외교관 후보자 시험 합격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매대학 협정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등이 있습니다.

3-6. 재무 구조와 리스크

2023년 대학재정알리미 기준 한국외대 등록금 의존율은 63.2%로, 동년 연세대(35.4%)·고려대(48.5%)·성균관대(46.7%)·이화여대(47.6%)·한양대(54.8%)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2021년 법인전입금은 전체 수입의 0.9%에 불과했고, 부채 비율은 9.7%(사립대 2위), 학내 노조·학생회는 법인전입금 확대와 법정부담금 정상화를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압력(2025년 5%, 2026년 2.3%)은 단기 재정 숨통이지만, 학령인구 감소 직격, 어문계 열 비인기화, 글로벌캠퍼스(용인) 통합 운영 비효율, 송도캠퍼스 초기 투자 부담이 4대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반면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 1,578명·총 3,733명(42.3%) 규모는 여전히 견실하며, 자유전공·계열별 통합모집 836명(24.02%) 확대로 모집 안정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무 측면의 핵심 과제는 등록금 의존율 60%대 후반을 어떻게 50%대로 낮출 것인가입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 확대(대학혁신지원사업, BK21, LINC 3.0, HK+ 등), 산학협력 수익 확대(LG CNS·네이버클라우드 등 MOU의 실제 매출화), 발전기금 모금 확대(해외 동문 모금 모델의 국내 확장), 부속·수익사업 매출 확대(외대어학원, FLEX, 평생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수입 확대 등이 다각화의 5대 채널이며, 행정 인력의 사업 기획·계약 관리·수익 보고 역량은 이 채널들의 성과를 떠받치는 실행 자원입니다.

3-7. 주요 부속·부설기관

외대어학원(영어학원 프랜차이즈), 외국어연수평가원, FLEX센터(자체 개발 7개 언어 국가공인 시험), 한국어문화교육원,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통번역센터, 영재교육원, 지식출판콘텐츠원(이문일공철),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국제지역연구센터·동남아연구소·중동연구소 등 36개 지역 연구소)이 주요 부속·부설기관입니다.

부속·부설기관의 다양성은 외대 행정 인력의 직무 경로의 폭을 확장합니다. 일반직은 본부 부서 외에도 부속·부설기관에 배치될 수 있으며, 어학원 운영, FLEX 시험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HK+ 사업 관리 등 본부 학사 행정과는 다른 영역의 실무를 경험합니다. HK+ 사업단은 외대의 지역학·국제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학 연구 자산을 결집한 정부 인문사회 연구지원사업으로, 36개 지역 연구소의 연구 성과 관리, 국제 학술대회 운영, 연구 결과물 출판 등 학술 행정의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3-8. 면접 활용 포인트

한국외대를 데이터로 이해할 때 핵심 키워드는 "공영재단·이원화에서 삼원화로·45개 외국어·등록금 의존율 63.2%·외교관 수석·AI 캠퍼스"이며, 이는 곧 "전통적 외국어 명문 + 재정 구조 개혁 압력 + 미래형 융합 대학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3중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기관임을 의미합니다. 외대의 어떤 자산이 과거형이고 어떤 자산이 미래형인지, 어떤 리스크가 단기 변수이고 어떤 리스크가 구조적 변수인지를 구분하는 분석적 시각이 외대 일반직 직무 이해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 사립대 행정직 일반직

4-1. 한국외대 공식 인재상 — HUFSAbility 6대 핵심역량

「외대비전 2028」과 핵심역량통합관리시스템 HUFSAbility는 6대 핵심역량을 명시합니다. 글로벌 시민성, 융복합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소통 능력, 자기주도 학습·성장 역량, 디지털·데이터 활용 능력의 6가지가 외대 학생과 직원 양쪽 모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입니다. "Come to HUFSA, Meet the World"라는 공식 슬로건에서 보이듯, 글로벌 시민으로서 다국적·다문화 환경에서 소통하고, 융합인재로서 어문·지역학·AI·데이터를 가로지르며, 기업가형 대학 운영에 기여하는 인재상이 한국외대의 공식 키워드입니다. 강기훈 총장 취임사의 "언어와 AI, 인문과 데이터가 결합하는 새로운 교육과 연구 모델"은 직원 인재상에도 동일한 방향성을 시사합니다.

6대 핵심역량의 의미는 학생과 직원에서 다소 다르게 작동합니다. 학생에게는 졸업 시점의 도달 목표로서 역량 인증과 졸업 요건에 연결되지만, 직원에게는 채용 시점의 평가 기준이자 입사 이후 직무 수행의 행동 지침으로 작동합니다. 글로벌 시민성은 외국인 유학생·해외 자매대학·외국 기관과의 일상 업무에서, 융복합적 사고력은 부서 간 횡단 협업과 사업 기획에서, 디지털·데이터 활용 능력은 학사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구체화됩니다.

4-2. 사립대 직원 채용의 일반적 인재상 키워드

업계 통념과 잡코리아·캐치 등의 합격자 후기, 그리고 한국대학교직원신문(uman.kr)의 직무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 일반직은 책임감과 정확성, 학생 서비스 마인드, 다부서 협업, 안정 지향과 성장 지향의 균형, 규정·법규 준수, 장기 근속 적성을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특히 한 건의 학적·재무·장학 처리 실수가 수십·수백 명의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 때문에, 꼼꼼함과 근거 기반 사고는 절대적 기본기입니다.

사립대 일반직의 인재상은 일반 기업의 그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강조되는 적극성·도전 정신·성과 지향이 사립대에서는 정확성·책임감·규정 준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변화 추구하고 안정성 유지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또한 사립대는 학생이라는 특수한 고객(보호 대상이자 동시에 비용 부담자)을 응대해야 하므로 일반적 고객 응대와는 다른 윤리적 감수성, 교육적 시야,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또한 사립대 일반직은 입사 이후의 경력 발전 모델이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일반 기업이 상대적으로 빠른 승진과 잦은 이직을 전제한다면, 사립대는 정년 보장과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한 점진적 전문화 모델이며, 입사 시점의 직무 적합도보다 장기 적응력과 학습 의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합니다.

4-3. 사립대 조직 문화의 특수성

학사일정 사이클의 지배는 사립대 조직 문화의 첫 번째 특수성입니다. 모든 부서 업무가 입시(9~2월), 수강신청(2·8월), 등록(2·8월), 중간/기말고사(4·6·10·12월), 졸업/입학식(2·8월) 등 학사 캘린더에 종속되며, 이로 인해 업무량의 계절적 편차가 매우 크고, 특정 시기의 야근·주말 근무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교수와 직원의 이중 위계는 두 번째 특수성입니다. 교원과 직원은 신분·승진·급여 체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라인도 별도입니다. 교수는 학사·연구·학생 지도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며, 직원은 본부 행정의 위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양자의 협업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경계,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보고 라인의 분리 등으로 인한 미묘한 협상과 조율이 자주 필요합니다.

다중 이해관계자 응대는 세 번째 특수성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수, 졸업생·동문, 외부기관(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청·지자체), 협력기업, 언론, 노조까지 단일 기업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해관계자별 우선순위와 응대 방식이 다르며, 한 사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상충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어 균형 감각과 갈등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안정성과 변화 압력의 공존은 네 번째 특수성입니다. 등록금 동결 시대의 재정 정체와 정부 사업 의존이 누적되어 보수적 운영 기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2024~2026년 등록금 정상화·AI 융합·송도캠퍼스 등 동시다발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정 인력은 기존 절차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사업의 추진력을 동시에 발휘해야 하며, 보수와 혁신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기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4-4. 한국외대 특유의 조직문화

외국어·국제화 DNA가 외대 조직문화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국외대 졸업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중이 높으며, 우리은행 외대지점은 인사 배정상 외대 동문 비중이 과반을 넘는 등 학교 정체성이 조직 운영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외대 출신 직원들은 외국어 능력, 외대 학사 구조에 대한 이해, 동문 네트워크 등에서 비외대 출신 직원과 차별화된 자산을 가지지만, 동시에 외부 시각의 수용, 학교 외부의 행정 표준에 대한 학습 의지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국제 업무 빈도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87개국 540여 개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협정, 매년 약 4,000명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유학생(202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25만 3,434명, 한국외대 비중 추정), Buddy Program, ISO(국제학생회) 매 학기 200여 명 매칭, 통번역대학원·국제지역대학원 운영 등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사용 빈도가 타 대학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외대 일반직은 영어 이메일·계약서 검토·외국인 응대·국제회의의 행정 등 일상 업무에서 외국어 활용이 빈번하며, 이는 외대 일반직 직무의 가장 차별화된 특성 중 하나입니다.

3캠퍼스 분산 운영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서울·글로벌(용인)·송도(2027) 간 인사 이동 및 원격 협업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이 일상화되어 있어 디지털 협업 역량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본부의 정책 결정을 캠퍼스별 단과대학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캠퍼스별 현장의 의견을 본부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운영이 외대 행정 인력의 일상적 과제입니다.

민주적·학생주도형 거버넌스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1998년 제2건학 운동의 결과로 총학생회·교수협의 회·노조의 발언권이 강한 편이며, 2025·2026년 등록금 협상에서도 학생 측 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행정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협상 비용을 증가시키며, 행정 인력의 협상·소통·기록 관리 역량이 더 큰 비중을 갖게 만듭니다.

4-5. 사립대 행정직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정확성·꼼꼼함은 첫째로 요구되는 특성입니다. 학적 정정·장학금 지급·등록금 고지 한 건의 오류가 즉각적인 민원·언론·감사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자기 업무의 결과가 수십·수백 명 학생의 학사 일정과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이 직무 수행의 기본기입니다.

규정·법규 사고는 둘째 특성입니다.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학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다층적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정부 감사·교육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서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필수입니다.

다부서·다이해관계자 조율 역량은 셋째 특성입니다. 교무·학생·재무·기획·총무·국제·산학협력 부서 간 횡단 협업과 교수·학생·외부기관 사이 중재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며,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 학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야가 요구됩니다.

학생 중심 서비스 마인드는 넷째 특성입니다. 민원의 다수가 졸업·수강·장학 관련이며, 학생 응대 친화력이 직무 만족도와 평판을 결정합니다. 학생을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 보는 시각이 외대처럼 학생 거버넌스가 강한 환경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장기 근속·점진적 전문화는 다섯째 특성입니다. 일반직은 순환보직으로 평균 2~4년 단위 부서 이동을 통해 학사·재무·기획·국제 등 다영역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하며, 30년 이상 근속하는 직원이 적지 않습니다. 장기 관점의 경력 설계, 부서 이동 시의 빠른 적응력, 보직 변경 후에도 이전 부서와의 협력 네트워크 유지 등이 중요합니다.

정부 사업 기획 역량은 여섯째 특성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BK21·LINC·HK·재정지원사업·RISE 등 사업비 확보가 재정 자립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사업 기획서 작성, 평가 대응, 컨소시엄 구성, 성과 보고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능력은 일곱째 특성입니다. 한국외대 종합정보시스템(WIS, 학적·수강·등록·장학·인사·급여·예산·구매·자산·연구관리 통합 ERP), 전자결재, 모바일 캠퍼스 활용은 외대 일반직의 일상 도구이며, 향후에는 AI 기반 행정 자동화, 데이터 분석 기반 의사결정 등으로 디지털 역량의 외연이 확장될 것입니다.

외국어 능력은 여덟째 특성으로, 외국인 유학생 행정·국제교류·해외 자매대학 협정 실무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외대 일반직 직무의 가장 차별화된 특성입니다.

4-6. 면접 활용 포인트

한국외대 인재상의 본질은 "글로벌 시민성 + 융복합 디지털 역량 + 규정 기반 정확성 + 학생 중심 서비스"의 4중 결합이며, "외국어 잘하는 친절한 행정직" 차원을 넘어 정부사업 기획·데이터 행정·국제 행정·재정 다각화 기획 역량까지 갖춘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사립대 일반직이 외대가 지향하는 직원 상입니다. HUF5 6대 핵심역량을 외대의 7대 자산과 결합하여 이해할 때 인재상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5장: 직무 분석 — 한국외대 일반직(행정직)의 실제 업무

5-1. 직무 정의 — 순환보직 제너럴리스트

한국외대 일반직 직원(정규직 교직원)은 입사 후 학사·교무·기획·총무·재무·인사·시설·홍보·국제교류·산학 협력·도서관·전산 등 본부 부서 또는 단과대학·부속기관에 무작위 배정되어 평균 2~4년 단위 순환보직을 통해 다영역을 경험합니다. 학과 사무실은 주로 조교(석사 학위 이상)가 담당하고, 본부 차원의 정책·예산·사업 업무는 일반직이 담당하는 분업 구조입니다. 평균 신규 직원 임금은 사립대 통계상 연 3,000만 원대 초반에서 출발하나, 외대는 정년 보장과 장기 근속 친화적 복지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환보직 제너럴리스트 모델은 외대 일반직의 경력 설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입사 후 첫 부서가 향후 10~30년의 경력 전체를 결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부서 경험이 누적되면서 학교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행정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이 모델의 단점은 특정 영역의 깊이 있는 전문성 축적이 더디다는 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 학습, 외부 교육, 학회 참여, 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계발이 권장되는 환경입니다.

5-2. 주요 부서별 업무

학사·교무처(교무행정팀)에서는 학적·수강신청·강의시간표·성적·졸업사정·교과목 개설·계절학기 운영·복수전공·이중전공·부전공 신청·학점인정·전과·휴복학·재입학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국외대는 이중전공 의무화(45개 외국어 + 사회과학·국제학·경영 등 조합)로 학사관리 복잡도가 매우 높으며, 외국어 졸업인증(FLEX 활용), 글로벌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간 수강신청 조율 등이 외대 특유의 복잡 변수로 작동합니다.

입학처에서는 수시·정시 입시 기획, 모집요강 작성, 입학 홍보, 외국인전형, 편입학을 담당합니다. 2026학년도 전체 모집 3,733명, 정시 1,578명 규모이며, 입학 홍보 영상 제작, 입학 설명회 운영, 입시 데이터 분석,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관 운영 등 매우 다양한 업무가 입학처 안에서 진행됩니다.

학생인재개발처(학생처)에서는 장학금(국가·교내·외부), 동아리, 학생 복지, 상담, 학생증, 기숙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외대는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아 다국어 상담, 외국인 기숙사 운영, 외국인 장학금 등 일반 사립대보다 다양한 학생 지원 업무가 발생합니다.

기획조정처에서는 「외대비전 2028」 발전계획, 정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통계, 대학평가(QS·THE 등), 등록금심의위 운영, 예산 기획을 담당합니다. 기획조정처는 외대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 학교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 평가에 대응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인사처·총무처에서는 교원·직원 인사, 노무, 복무, 4대 보험, 시설관리, 구매를 담당합니다. 교원과 직원의 인사 시스템이 다르고, 시설은 두 캠퍼스(향후 세 캠퍼스)에 분산되어 있어 인사·총무 부서의 업무 복잡도도 높습니다.

재무처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결산, 자금관리, 등록금 고지서 발송, 법정부담금, 회계감사 대응을 담당합니다. 사립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이 정부 평가의 핵심 항목인 만큼, 재무처의 정확성과 절차 준수는 학교 전체의 평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교류처(OIA)에서는 87개국 540여 자매대학 협정, 교환학생, 외국인 유학생 모집·비자(D-2/D-4)·생활 적응, 해외 인턴십·복수학위(2+2)를 담당합니다. 외대에서 가장 활동량이 많은 부서 중 하나이며, 외국어 활용 빈도가 가장 높고 국제 출장도 잦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관리, 기술이전, 창업지원, BK21·HK 등 정부 연구사업을 담당하며, 홍보실·대외협력처에서는 보도자료, 동문, QS/THE 등 대학평가 대응, 발전기금을 담당합니다. 부속·부설기관에는 도서관, 정보처(OIS), FLEX센터, 외국어교육센터, 평생교육원, 한국어문화교육원, 통번역대학원 교학과,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5-3. 일·주·월·연 단위 업무 사이클

학사일정에 종속된 사이클이 사립대 행정직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연 단위 사이클로는 1~2월의 등록·수강신청·신입생 입학식·등록금심의위, 3~6월의 1학기 운영·중간·기말, 7~8월의 계절학기·등록·수강신청, 9~12월의 2학기 운영·정시 입학원서·졸업사정 업무가 반복됩니다. 월 단위로는 월별 결산과 정부 사업 보고가, 주 단위로는 부서장 회의와 본부 보고가, 일 단위로는 학생·교수·외부기관 응대와 전자결재(WIS) 처리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량의 계절적 변동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2월·8월의 등록·수강신청 시즌, 12월의 입시 발표 시즌, 1월의 등록금심의위 시즌 등에는 야근·주말 근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5월·11월 등 학기 중반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업무 흐름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이클의 반복성이 업무 표준화와 매뉴얼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업무가 매년·매학기 반복되는 만큼, 절차의 효율화와 시스템화가 누적적 가치를 발휘합니다.

5-4. 이해관계자 맵

학생(약 1만 9,000명 추정·학부+대학원), 학부모, 교수(전임·비전임 합 약 1,500명 내외 추정), 외국인 유학생(수천 명), 동문(약 12만 명·해외동문 40개국),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용인시(글로벌)·서울시 동대문구, 협력 기업(LG CNS·네이버클라우드·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메이저 언론, 한국대학신문·교수신문·대학저널·베리타스알파·한국대학교직원신문 등 대학 전문지가 외대 행정 인력의 이해관계자 맵을 구성합니다.

이해관계자 맵의 폭과 깊이는 일반 기업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며, 외대 일반직은 어느 부서에 배치되든 다중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관리를 직무의 일부로 수행합니다. 이해관계자별 우선순위는 부서마다 다르지만, 학생 보호와 학교의 평판 관리는 모든 부서에 공통되는 행동 원칙입니다.

5-5. 필요 역량

기술적 지식으로는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학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개인정보보호법·부정청탁금지법, 회계·예산 기초, 통계 처리(엑셀·SPSS·Tableau), MS Office, 한국외대 종합정보시스템(WIS), 전자결재, 핸디오피스가 필요합니다. 입사 시점에 모든 지식을 보유할 수는 없지만, 입사 이후의 학습 의지와 부서별 OJT를 통한 누적적 학습이 결정적입니다.

소프트스킬로는 정확성, 학생 응대 친화력, 문서작성(보고서·기안문·계획서·결과보고서), 협업, 회의 진행, 정책 이해가 핵심입니다. 사립대의 모든 의사결정은 문서로 남으며, 정확하고 명료한 문서 작성 역량은 직무 평가의 가장 가시적인 지표입니다.

외대 특성 역량으로는 영어(필수), 가능하면 중국어·일본어 등 제2외국어, 글로벌 매너·다문화 감수성, 디지털·데이터 친화성이 요구됩니다. 외대 일반직의 차별화된 직무 특성은 결국 외국어와 국제 행정의 일상화이며, 이는 다른 사립대 일반직과 외대 일반직을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 변수입니다.

5-6. 성과지표(KPI)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액(대학혁신지원사업·BK21·LINC·HK·RISE 협력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Study Korea 300K 연계), 입학경쟁률·신입생 총원율(외대는 사립대 평균 96.6% 상회), 졸업생 취업률(현재 65.29%·유지 82.94%로 개선 과제), 학생 만족도, 대학평가 결과(QS·THE·중앙일보·U.S. News), 발전기금 모금액(박정운 총장 임기 해외 동문 1,000만 달러 모금 사례), FLEX 응시자·외대어학원 매출 등 자체 수익사업, 송도캠퍼스 개교 준비 진척도(2027년 100명 모집)가 외대의 주요 성과 지표입니다.

이 KPI들은 부서별로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학교 전체의 성과 평가에 누적적으로 반영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와 대학평가 결과는 차기 사업 수주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누적적 변수입니다. 일반직의 직무 평가는 본인이 속한 부서의 KPI 달성도와 본인의 개별 업무 수행도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5-7. 가상 업무 시나리오 예시

외국인 유학생 비자 행정 시나리오로는 신학기 D-2 비자 일괄 신청 시즌에 100여 명의 국가별 서류 누락 점검, 출입국 외국인청과 협의, 한국어 능력 부족자 학적 처리 가이드 작성 업무가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발송 시스템 오류 대응 시나리오로는 종합정보시스템(WIS) 오작동으로 일부 학과 학생에게 잘못된 금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정보처·재무처·해당 단과대학 행정실·학생인재개발처 4부서 긴급 회의를 운영하고, 정정 고지·환불 절차·학생 사과 공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AI융합대학 신설 사업 기획 시나리오로는 교육부 첨단학과 신설 계획서 제출, 정원 결손 활용, 공과대학·통계학과·정보처·기획조정처 협업, LG CNS·네이버클라우드 MOU 행정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 평가 시나리오로는 사업 실적 보고서 작성, 한국연구재단 평가 대응, 미흡 영역 보완계획 수립 업무가 있으며, 송도캠퍼스 개교 준비 시나리오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연수구청 협의, 2단계 건물 운영 계획,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입학·학사 운영 매뉴얼 신규 작성 업무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의 공통점은 단일 부서로 완결되지 않고 다부서 협업과 외부 기관 협의를 동반한다는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점, 정확한 절차와 기록 관리가 결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일정한 외국어와 디지털 역량이 일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5-8. 면접 활용 포인트

한국외대 일반직의 본질은 "학사일정에 종속된 정확한 행정 + 87개국 글로벌 행정 +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행정 + 재정 다각화 기획"이라는 4중 직무이며, 이는 사무직 차원이 아니라 외대의 트랜스포메이션, 즉 어문 명문에서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 대학으로의 전환을 행정 인프라 차원에서 떠받치는 핵심 실행 자원입니다. 직무의 표면적 일상은 학적·수강·등록·장학 등 반복적 행정이지만, 그 누적된 결과가 외대의 입학경쟁률·재정 의존율·국제화 지표·정부사업 수주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외대 일반직의 직무 가치는 학교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hufs.ac.kr/>
2. 외대비전 2028 — <https://www.hufs.ac.kr/hufs/11119/subview.do>
3. 한국외대 발전계획 외대비전 2028 PDF — <https://hufspan.hufs.ac.kr/sites/hufspan/download/vision2028.pdf>
4. 한국외대 역사 — <https://www.hufs.ac.kr/hufs/11123/subview.do>
5. AI융합대학(서울) — <https://www.hufs.ac.kr/hufs/11233/subview.do>
6. 통번역대학원 소개 — <https://www.hufs.ac.kr/hufs/11271/subview.do>
7. 융합인재대학(인제니움칼리지) — <https://www.hufs.ac.kr/hufs/11247/subview.do>
8. FLEX센터 공식 — <https://flex.hufs.ac.kr/>
9.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 <https://gsit.hufs.ac.kr/>
10. HUFSA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 <https://job.hufs.ac.kr>
11. 한국외대 입학처 — <https://adms.hufs.ac.kr/>
12. HUFSAbility 핵심역량통합시스템 — <https://hufsability.hufs.ac.kr/>
13. 한국외대 종합 정보 — <https://namu.wiki/w/%ED%95%9C%EA%B5%AD%EC%99%B8%EA%B5%AD%EC%96%B4%EB%8C%80%ED%95%99%EA%B5%90>
14. 동원육영회 지배구조 — <https://namu.wiki/w/%EB%8F%99%EC%9B%90%EC%9C%A1%EC%98%81%ED%9A%8C>
15. 한국외대 위키백과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99%B8%EA%B5%AD%EC%96%B4%EB%8C%80%ED%95%99%EA%B5%90>

- | | | | | |
|---|-------|--------|---|---|
| 16. 교육부 | RISE | 시범지역 | 선정 | — |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116 | | | | |
| 17. 한국대학신문 | 글로벌30 | 2025 | 본지정 | 결과 — |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475 | | | | |
| 18. 외국인 | 유학생 | 25.3만명 | 도달 | — |
|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7 | | | | |
| 19. RISE | 2조 | 4천억 | 투입 | — |
|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 | | | | |
| 20. 외국인 | 유학생 | 25만명 | 돌파 | —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4070005965 | | | | |
| 21. 정부 | 17년 | 사립대 | 등록금 | 규제 완화 — |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121100i | | | | |
| 22. 사립대 | 등록금 | 인상 | 동향 |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800001 |
| 23. 2025학년도 | 대학 | 등록금 | 현황 | 사총협 — |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5374 | | | | |
| 24. 한국외대 | 2026 | 등록금 | 2.3% | 인상 — |
| https://www.fnnews.com/news/202601291432136206 | | | | |
| 25. 한국외대 | 등록금 | 2.3% | 인상 | 협약 — |
| https://www.edu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84 | | | | |
| 26. 한국외대 | 등록금 | 의존율 | 63.2% | — |
| https://www.univalli.com/news/article.html?no=25081 | | | | |
| 27. 사교련 | 38개 | 사립대 | 운영실태 | — |
|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1 | | | | |
| 28. 강기훈 | 총장 | 인터뷰 | 글로벌 | 지식혁신 허브 — |
|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416010037966 | | | | |
| 29. 강기훈 | 총장 | 취임식 | — https://www.dhnews.co.kr/news/view/1065589830743769 | |
| 30. 외교관 | 후보자 | 2년 | 연속 | 수석 — |
|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323 | | | | |
| 31. 송도캠퍼스 | 2단계 | 준공 | 2027 | 개교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16829 |
| 32. 외대 | AI | 융합대학 | 특화 | — |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일반직(행정직원)

- <https://www.mt.co.kr/policy/2025/12/15/2025121501142375913>
33.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25개교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9300>
34. 글로벌대학30 최종 마무리 —
<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9>
35. 한국외대 17년 만 등록금 인상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2106071880147>
36. 2026 한국외대 정시 1,578명 — <https://news1.kr/society/education/6014750>
37. 2026 한국외대 정시 가이드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1218500522>
38. 한국외대 메인 공지 — <https://hufsmain.hufs.ac.kr/hufs/index.do>
39. 한국외대 국제교류팀 — <https://oia.hufs.ac.kr/>
4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
https://www.kcue.or.kr/_upload/pds/2024/06/24/application_341618f994d33e3f63bf6d7197de59dd.pdf
41. 사총협 2022-2023 고등교육 통계 —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9>
42. 한국외대 취업률 분석 —
https://www.hufsjournal.com/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15010000&gisa_idx=277141
43. 김종철 이사장 연임 확정 — <https://www.univalli.com/news/article.html?no=24626>
44.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포털 — <https://uniall.nrf.re.kr/>